

부처님 출가·열반 의미 정진으로 기린다

전국 사찰 출가·열반제일 행사 '다채'

음력 2월 8일과 15일은 불자들에게 뜻 깊은 날이다. 8일은 부처님이 왕좌를 버리고 출가(出家)의 원력을 실천으로 옮긴 출가제일이며 15일은 중생구제에 원력을 다한 부처님이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은 열반제일이다. 불자들은 이 8일 동안 큰 명절로 기리면서 출가열반 특별정진을 한다.

올해의 출가·열반절 기간은 3월 8일부터 15일까지다. 이 기간 전국 주요사찰들이 참회 정진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학, 02-511-6070)는 주지 원학 스님의 특별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출가제일인 3월 8일과 9일, 열반제일인 15일 오전 11시 봉은사 법당에서 원학 스님이 직접 <열반경>을 강의한다.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 055-382-7182)는 3월 8~15일 '불기 2558년 부처님과 함께'를 주제로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금강경독송, 예불 정진을 진행한다.

또한 매일 오전 1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사)의 '출가의 의미-출가' △지안 스님(고시위원장)의 '부처님의 가르침-사성제' △우진 스님(서죽암 감원)의 '부처님의 계율-십선업' △영

랑 스님(기획국장)의 '부처님의 가르침-팔정도' △중선 스님(수도암 감원)의 '부처님의 가르침-십이인연' △지형 스님(통도사 강주)의 '부처님의 가르침-사무량심' 등을 주제로 법문이 진행된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02-2650-2220)는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정진주간을 삼아 수행정진한다. 이 기간동안 국제선센터 사부대중들은 '참회

봉은사 주지 스님 '열반경' 직강 국제선센터 정진 주간 기도 정진 철야 다라니, 팔상록 기도 '눈길'

와 서원의 행복찬 108배'와 발원문 봉독 등의 수행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대표 수행모임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02-587-8993)도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을 맞아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우라'를 주제로 8일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정토회는 매일 오전 9시 사시예불과 300배정진을, 오후 7시부터 저녁예불과 108배 정진을 진행한다. 또한 법륜 스님의 영상법문도 함께 이뤄진다. 정토회의 본당적인 서초법당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출가·열반제일 정진 모습. 전국 사찰들도 출가열반 정진 주간을 맞아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천, 강서, 노원 등 각 지역 법당에서도 이 같은 정진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회향천도재도 함께 봉행된다.

출가·열반제일을 맞아 자비도량참법 기도 정진을 진행하는 사찰도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정수, 031-527-1956)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청풍루에서 자비도량참법 기도 정진을 진행한다.

부산 흥법사(051-508-0345)는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자비도량참법 정진에 들어가며 회향일인 15일에는 합동수계의식도 봉행하며, **화계사**(주지 수암, 02-902-2663)도 출가제일을 맞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철야 다라니 정진을 한다.

마곡사(주지 원경, 041-841-6220) 역시 출가·열반절을 맞아 부처님 열반의 참 뜻을 되새기며, 응진전에서 기도 정진이

수계교육 입교 행자, 1보1배 정진

행자 114명 24일 직지사서

지난 18일 제46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한 남행자 68명과 여행자 46명 등 총 114명의 행자가 2월 24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대웅전 앞에서 1보1배 정진을 했다.

수계교육 지도위원장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은 이날 1보1배를 마친 행자들에게 절수행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며 "절은 수행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수행이다. 숨 쉬

는 일, 밥 먹는 일, 차 마시는 일처럼 일상에서 떨어뜨리는 안 될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수계교육 기간에는 율학, 경학, 염불의식, 습의, 선, 교, 율과 전법교화 등 다양한 특강이 진행되며 오는 3월4일 5급승가고시를 치른 후 합격자에 한해 5일 수계식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다. **신종일 기자**



2월 24일 직지사서에서 진행된 사미 사미니 수계교육에서 행자들이 1보 1배 정진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 확대해야”

인권위 등 26일 기자회견

“통일의 선행조건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와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확대에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한반도불교평화통일실천기획단은 2월 26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일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통해 세계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동반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통합을 하는데도 진통 끝에 십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허물며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은 생사를 건 노력과 인내를 각오해야 한다”며 “정치적 합의 이전에 민간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통일의 원칙은 남북 긴장이 아니라 신뢰구축을 통한 소통과 화합에 있다. 남북이이산가족의 한과 눈물이 통일을 위한 역량을 쌓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 맥락 위에 있다”고 역설했다. **배현진 기자**

민추분, 조불련과 불축합동법회 논의

11~12일, 中 심양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분)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과 남북불교교류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3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는 불기 2558년 부처

님오신날 불축 남북합동법회, 만해스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서산대사 국가제향 복원, 북녘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불교교류의 중장기 전망에 관한 정책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1월 중순 민추분이 남북불교교류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2월 초 조불련이 동의하면서 이루어졌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문화재 안내책 발간

평창 오대산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청소년 동아리는 지역 사회 전통 문화재를 소개하는 '청소년 영어문화재해설사-청소년 문화재 액티비티북(사진)'을 최근 발간했다.

책 제작에는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퀴즈가 적절히 섞여 있다.

'청소년 영어문화재해설사-청소년 문화재 액티비티북'은 국내 어린이들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쉽게 문화재 정보를 전달하고자 영어판으로도 제작됐다. 책은 월정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거나 성보박물관에 방문하는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한편 문수청소년회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과 성장을 위해 설립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학술원 내홍에 ABC사업 파행 우려

실무진 “원장 전횡, 용퇴하라” VS 현각 스님 “관행 타파한 것”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진행 중인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ABC사업)' 운영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불교계 사상 유례없는 총 2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ABC사업이 파행됐을 경우 향후 다른 국고지원 사업에도 영향이 예상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ABC사업단 이종수 집행팀장(조교수)과 박익선 역주팀장(조교수)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이 현각 스님의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해외문화조사비 결재 거부 등 행정 파행 △측근인사 채용 △연구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등이다.

이들은 먼저 현각 스님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해외문화조사비 3000만원 중 일부 조사비 결재를 거부하는 등 일보 용곡, 대곡, 경도대학 내 문헌조사를 중지시켜 ABC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

다. 또 이들은 현각 스님이 취임 이후 전임 연구원 채용에서도 행정을 불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각 스님은 25일 서울 장충동 불교학술원 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불교학술원의 잘못된 관행과 방만한 사업 운영행태를 바로잡는 과

외출장으로 국비를 낭비해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스님은 역주자 교체에 대해 “지금까지 임의추천 등에 의해 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역주를 진행해 역주 작업의 폐해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동국대 한 고위관계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현각 스님의 주장과 ‘기획위원회에 보고 했다’는 두 팀장의 주장에 대해 “불교학술원의 경우 여러 사업단을 포괄하는 그룹의 모체 개념으로 있는데 ABC사업단은 당연직 단장을 불교학술원장이 맡고, 실무는 맡은 기획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는 구조였다”며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동국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원장 당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었었는데 후임원장이 사업 내용을 점검하니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전문성을 위한 자율보장과는 별개로 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실무진
“해외 문헌조사 결재 거부”
현각 스님
“무분별 출장 국비 낭비”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리사욕을 채우려 ABC사업을 불모로 잡는 두 학자에게 다시 한번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해외문헌 조사의 경우 이미 국내에 있는 자료들이며 그동안 무분별한 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민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되십니까?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장 / 한국 빙의·퇴마·최면연합회 총재
현오스님이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교육생 수시모집 [최면·퇴마·자극요법·기공]

서울 은평구 | 부산 동래구 사직1동 18-14 | 인터넷상담 가능
010-5656-3915 | 010-9229-3801

빙의·신병·천도재전문 **현오스님**을 찾으세요